

한국심리학회지 : 빌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2. Vol. 25, No. 1, 101-115

한국 아동의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

배 성 봉

박 혜 원*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한국 아동의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과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3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CHILDES 코퍼스를 분석하여 한국어 모어 사용자인 아동과 양육자에서 의성의태어가 많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실험상황에서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청자의 연령에 따른 의성의태어 사용을 분석하였다. 아동은 청자에 따라 의성의태어 사용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육자들은 아동에게 말할 때 의성의태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과 양육자 모두 사물보다는 동작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의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 3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양육자(다문화가정)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자유 대화에서 외국인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은 한국인 양육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패턴은 아동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의성의태어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아동지향어의 특징이며 어휘획득 등 언어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의성어, 의태어, 아동지향어, 성인지향어

의성어나 의태어는 감각이나 신체행동을 소리 또는 움직임의 차원에서 표현하는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마음의 움직임, 즉 역동성을 잘 표현하는 독특함을 지닌다. 의성어는 귀에 들리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고, 의태어는 청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에 의해 포착된 움직임이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즉, 의성어는 청각에, 의태어는 시각이나 촉각에 뿐만 아니라 감각에 대한 감각이다. 의성의태어(의성어와 의태어를 동시에 지칭할 때는 ‘의성의태어’로 한다)는 인간의 감각적 인식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오감에 유래하기 때문에,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해

* 본 논문은 2010년도 울산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 교신저자 : 박혜원, E-mail: hyewonc@mail.ulsan.ac.kr

가능하다. 즉 성인에게도 아이에게도 서로 이해 가능한 공통적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의성의태어는 언어획득의 기반이 되는 “언어 이전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유아 용알이의 음절 반복이 가진 리드미컬한 표출 음성은 의성의태어의 양상을 띠고 있다(Osaka, 1999).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보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풍부하다. 연변언어연구소(1982)의 ‘우리말 의성의태어 분류 사전’에는 8,286개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수록되어 있다. 보다 최근의 자료로서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표준국어대사전 발간을 위한 예비 조사에 따르면, 의성어와 의태어의 수는 약 5,800개에 이르는데, 이는 다른 어떤 언어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비교적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다고 알려진 일본어의 경우에도 약 2,500개 정도가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어떤 언어들은 의성어 또는 의태어에 해당하는 어휘총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영어나 프랑스어를 비롯한 인도유럽어에서 의성어는 사용되지만 의태어의 범주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해당되는 용어 자체가 없다(채완, 2003). 이처럼 다른 언어와 비교해 두드러지는 한국어의 의성의태어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 사용자들의 감각경험과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다. 특히 초기 언어발달에서 나타나는 의성의태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어휘사용의 일면을 보여주며, 아동 언어 교육 특히 어휘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의태어에 대한 언어심리학적 연구는 아직 적으며, 아동의 언어습득과 관련해서 의성의태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아동의 의성의태어 사용이나 아동의 언어환경 속에 등장하는 의성의태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아동지향어 (child-directed speech: CDS)

아동과 말할 때 어른들은 억양을 과장하고, 발음을 분명히 내려고 하면서,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성인들이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특이한 유형의 말소리 또는 어휘를 성인지향어(adult-directed speech: ADS)와 구분하여 아동지향어(child-directed speech: CDS)라고 한다. 아동지향어는 종종 모성어 (motherese), 아기말투(baby talk), 양육언어(nursery language), 양육자 발화(caregiver speech) 또는 대상연령에 따라, 영아지향어(infant-directed speech)라고 명명되기도 한다(Cattell, 2000).

양육자 특히 어머니는 아이에게 특이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데, 마치 아동의 능력에 맞추듯이 단순한 통사와 의미, 그리고 과장된 운율구조를 사용한다. 아동지향어의 속성을 다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운율적 특징을 강조한다.

운율적 신호(prosodic signals)는 성인이 아동에게 말할 때 특히 과장된다(Fernald & Mazzie, 1991; Jusczyk, Hirsh-Pasek, Nelson, Kennedy, Woodward, & Piwoz, 1992; Lederer & Kelly, 1991; Morgan, 1986). 음악적 속성을 띠는 운율 단서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는 강조되고 아동의 지각 능력에 적합하게 된다(Fernald, Taeschner, Hirsh-Pasek, & Jusczyk, 1989). 이러한 목소리 조정은 매우 직관적이고 선천적인 것으로 보이며 아동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만 사용된다(Papousek & Papousek, 1987). Werker, Pons, Dietrich, Kajikawa, Fais와 Amano (2007)는 일본어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머니들이 아동에게 단어를 가르치는 것을 녹화하여 소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 모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서들은 언어-특정적 차이를 보였다. 양육자 발화에

서 이러한 단서들의 빈번한 사용은 아동이 모국어의 음소 카테고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제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지향어의 구조적인 속성—운율구조—에만 관심을 두지만, 아동지향어는 언어적 콘텐츠에서도 성인지향어와 차이를 보인다. 일본어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지향어를 비교한 Mazuka, Kondo와 Hayashi (2008)는 어휘적 조정이 나타나는 “베이비 토크”에서 특정 유형의 단어 사용 특히, 의성어의 사용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지향어는 아동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며 (Barker & Newman, 2004; Cooper & Aslin, 1990; Fernald, 1992; Werker & McLeod, 1989), 정서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Taumoepeau & Ruffman, 2008). 또한 새로운 단어 학습을 촉진하는 언어교시적 역할 (Kemler, Hirsh-Pasek, Jusczyk, & Cassidy 1989; Thiessen, Hill & Saffran, 2005)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한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아기에 적절한 영아지향어(IDS)가 결여되면 아동의 인지 및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남이 보고되어 있다(Downey & Coyne, 1990).

아동지향어는 실제로 아동의 언어 학습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 또는 표적이 되는 단어는 아동지향어에서 주로 마지막에 발화된다(Fernald & Mazzie, 1991). 아동은 대부분 발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분리하고, 재인하는 데 성공한다. 또한, 아동지향어의 운율적 속성은 말소리 분절을 촉진시켜 어휘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Daniel & Aslin, 2000). 뿐만 아니라, 아동지향어의 단순한 문장구조와 과장된 운율 특징은 문법구조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Fisher & Tokura, 1996;

Morgan, Meier, & Newport, 1987; Venditti, Jun, & Beckman, 1996).

아동지향어의 언어보편성과 언어특수성

단순한 언어, 과장된 운율, 그리고 빈번한 반복 등은 아동에 대해 성인이 보이는 보편적 반응경향성으로 아동지향어의 특징이다. 아동지향어의 이러한 특징은 영어 이외에도 중국어(Greiser & Kuhl, 1988), 일본어(Mazuka, Kondo, & Hayashi, 2008), 유럽언어들(Fernald, et, al, 1989)에서도 보고되고 있어, 문화와 언어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더 자주 반복하는지, 사물을 어떻게 명명하는지와 같은 속성들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어와 영어를 비교언어학적으로 관찰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본인 어머니들은 미국인 어머니에 비해 간접적인 스피치 스타일을 선호하지만(Morikawa, Shandf, & Kosawa, 1988), 미국인 어머니들은 일본인 어머니들보다 정보-지향적인 언어를 더 선호한다 (Toda, Fogel, & Kawai, 1990).

의성의태어의 사용에 있어서 문화와 언어에 따른 차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의성어 사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Fernald와 Morikawa(1993)는 일본인 어머니들은 아동의 주의를 끄는 비언어적인 소리와 의성어(연구자들은 이를 묶어 ‘베이비토크’라고 칭하였음)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인 어머니는 6개월, 12개월, 그리고 19개월의 유아에 대해서 사물의 이름을 직접 명명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의성어를 빈번히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자동차’ 대신에 ‘부릉부릉’). 이에 반해 미국인 어머니들은 사물을 지시할 때에 전혀 의성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52%의 일본인 어머니들은 사물을 명

명할 때 명사대치 기능의 의성어를 사용한데 반해 미국인 어머니의 경우 단 한명만이 의성어를 사용하여 사물을 명명하였다. 이는 일본어 아동지향어에서 ‘베이비토크’가 영어에서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Fischer, 1970; Ogino, 1981). Mazuka 등 (2008)도 일본어 아동지향어에서 의성이 사용과 음절반복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베이비 토크가 많이 사용됨을 보고하였다.

한국 유아와 아동의 언어발달과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근래에 많이 보고되고 있다(이승복, 장유경, 1999; 장유경, 임현정, 곽금주, 2004; 이해련, 이귀옥, 2005).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아동의 어휘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지향어의 측면에서의 고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김민정(2009)은 유아와 아동의 말소리 습득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아동지향어와 성인지향어에 나타난 폐쇄음—조음기관을 갑자기 개방하여 내는 소리로 파열음이라고도 한다. 한국어의 ‘ㅂ · ㅃ · ㅍ · ㄷ · ㄸ · ㅌ · ㄱ · ㄲ · ㅋ’ 등이 해당된다—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른 언어에서 확인된 음향적 특성이 한국어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다른 언어를 토대로 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아동 지향어의 폐쇄음에서 나타나는 음향적 조정양상이 한국어에서도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정된 발화의 사용이 한국어 폐쇄음을 습득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언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말소리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아동지향어의 운율적 특징은 다른 언어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아동지향어의 언어보편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어 아동지향어의 어휘적인 특징은 어떨까? 아쉽게도 아동의 어휘발달과 관련해 아동지향어의 특징을 다룬

연구들은 한국어에서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특히 의성의태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어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여 한국어 아동지향어와 의성의태어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 일본어, 그리고 영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대화 속에 출현하는 의성의태어 사용비율을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실제로 의성의태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2에서는 아동지향어로서의 의성의태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실험연구를 통해 양육자들의 의성의태어 사용이 청자에 따라 그리고 설명하려는 대상의 속성이 사물이거나 동작이거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아동에게까지 확대하여 아동들은 자신보다 더 어린 아동들에게 말할 때, 아동지향어를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3에서는 성인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였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자로 포함하여 이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의성의태어를 관찰하고 그 패턴이 한국인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과연 한국어 아동지향어의 언어특수적인 특징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1: CHILDES 자료분석

연구 1에서는 아동과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CHILDES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 코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 일본, 미국 아동의 대화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코퍼스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수 많은 언어자료가 전사되어 있으며, 언어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CHILDES 코퍼스에 실려 있는 한국 아동(Jiwon, 2;0-2;3, 여아), 일본 아동(Ryo, 2;0-2;3, 남아), 그리고 미국 아동(Peter, 2;0-2;3, 남아)과 아동의 양육자(어머니) 사이의 발화내용이었다. 세 개의 원자료는 오랜 기간을 두고 수집된 방대한 양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4개월부터 27개월까지 3개월 동안의 자료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녹음자료의 길이는 각각 10시간씩이었다.

분석방법

CHILDES 매뉴얼(MacWhinney, 2000)에 따라 전사된 스크립트에는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들에 의해 붙여진 형태소 표지(tag)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CLAN(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육자 발화와 아동 발화 각각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추출하여 전체발화에서 의성의태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결 과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화자(아동/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비율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발화된 전체 어휘 수는 한국어 부모 26636, 한국어 아동 9658, 일본어 부모 6522, 일본어 아동 4921,

표 1. 한국어, 일본어, 영어 사용 이동,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비율

	한국어	일본어	영어
아동	2.73%	2.15%	1.10%
양육자	2.24%	1.01%	0.32%

영어 부모 51795, 영어 아동 24898이었다. 전체 발화수에서 언어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의 목적, 자료 수집 상황과 시기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영어에 비해 아동과 양육자 모두 전체발화에서 차지하는 의성의태어 사용비율이 높았다. 또한 아동과 양육자의 발화를 비교하여 보면 아동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언어별로 하나의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더 많은 양육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좀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의성의태어와 관련한 발화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 2와 3을 실시하였다.

연구 2. 실험 상황에서의 발화수집 및 분석

연구 2에서는 더 많은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실험상황을 구성하여 아동과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Nagumo, Imai, Kita, Haryu와 Kajikawa(2006)의 절차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아동(또는 양육자)이 인형(또는 자녀)과 다른 성인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상황을 구성하여 의성의태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찰하였다. 예를 들면, 사물을 조작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공을 굴리는 소년, 카펫을 깨는 사람 등)을 주고, 그것을 아동(18-20개월) 또는 다른 성인에게 각각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 57%에서 의태어가 이용

되었고, 의태어가 이용되지 않는 기술적 설명은 39%였다.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는 81%가 기술적인 설명이고, 단지 12%에서만 의태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대상 발화보다는 아동대상 발화에서 의성의태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일본어 아동지향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지향어는 청자에게 민감한 특수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어머니들이 성인에게 말할 때보다 아동에게 말할 때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의성의태어의 빈번한 사용은 한국어 아동지향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실험에서는 5세 이하의 아동이 청자의 수준에 맞추어 의성의태어 사용정도를 조절하는지도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자에 따른 의성의태어 사용을 비교하는 목적 이외에 사물과 동작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설명할 때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만 2-3세(32개월에서 48개월)의 아동과 양육자 2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극재료

실험 연구를 위해 그림어휘력 검사(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2004)로부터 움직임이 없는 사물(예를 들어, 책상, 꽃, 컵 등)을 나타내는 ‘사물 그림’ 24개와 움직이는 동작(예를 들어, 공을 차고 있는 사람, 줄넘기를 하고 있는 사람 등)을 나타내는 ‘동작 그림’ 24개를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사물 그림’과 ‘동작 그림’ 각각 12개씩을 무선 표집하여 아동용과 양육자용 각각 2개의 그림판 세트를 만들었다. 그림 1에 자극재료의 한 예를 제시하였다.

절차

실험은 연구자가 아동의 집을 개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어머니에게는 ‘아동 언어 발달에 대한 실험’이라고 소개한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아동실험과 어머니실험은 따로 실시하였으며, 아동실험의 경우, 그림판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인형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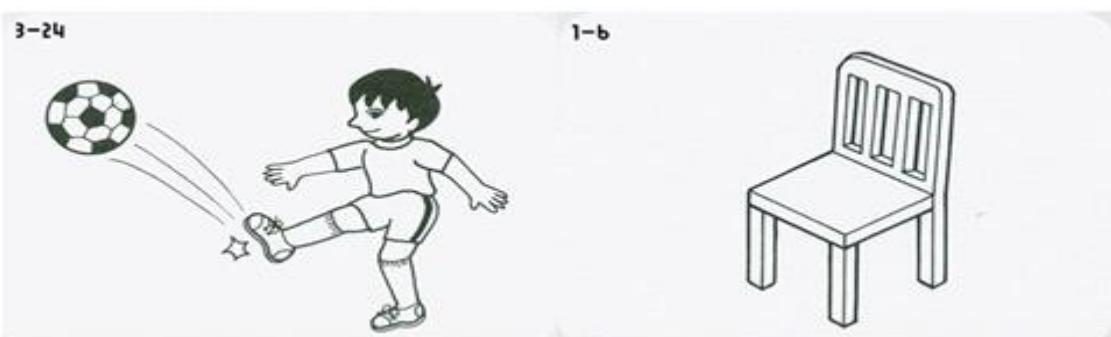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자극그림의 예: 동작그림(좌)과 사물그림(우)

표 2. 청자와 자극그림에 따른 아동의 의성의태어 평균사용빈도

청자	사물그림 (n=12)		동작그림 (n=12)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형청자	0.46	0.81	0.69	1.09	0.58	0.96
성인청자	0.54	1.10	1.46	2.40	1.00	1.91
전체	0.50	0.96	1.08	1.89	0.79	1.52

그리고 실험자에게 자세히 묘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어머니 실험의 경우에는 설명을 듣는 대상이 아동과 실험자였다. 어머니와 아동의 연구 참여순서는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경우, 화자일 때와 청자일 때 동일한 그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은 아동과 어머니 각각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실험의 전 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실험이 끝난 직후, 녹화자료를 보고 발화 내용을 전사하여 의성의태어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실험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2쌍의 자료를 제외한 26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극그림의 종류(사물그림, 동작그림)와 청자(아동, 성인)에 따른 의성의태어 사용빈도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셀의 수치는 12회의 시행 중 의성의태어가 사용된 시행의 수를 나타낸다. 표2와 3의 결과를 대상으로 자극그림의 종류(사물그림, 동

작그림)와 청자(아동, 성인)를 조인으로 하는 2x2의 이원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아동자료와 양육자 자료를 각각 나누어 실시하였다.

표 2의 아동의 결과에서는, 사물그림에 비해 동작그림에 대해서 의성의태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0.50 vs. 1.08)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25) = 6.49$, $MSE=1.33$, $p < .05$. 언어적 명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동작’을 묘사할 때, 아동들이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그러나 이 연령의 아동은 아직 청자의 연령에 따라 의성의태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청자의 주효과 및 청자 x 자극그림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자의 경우도 자극그림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25) = 19.92$, $MSE=3.82$, $p < .0001$. 사물그림을 설명할 때보다 동작그림을 설명할 때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1.85 vs. 3.56).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청자가 실험자(성인)일 때보다 아동일 때, 의성의태어를 이용한 설명을 훨씬 더

표 3. 청자와 자극그림에 따른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평균사용빈도

청자	사물그림 (n=12)		동작그림 (n=12)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청자	3.15	2.39	5.38	3.53	4.27	3.19
성인청자	0.54	1.21	1.73	2.60	1.13	2.10
전체	1.85	2.30	3.56	3.58	2.70	3.12

많이 하였으며(4.27 vs. 1.13)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25) = 35.04$, $MSE=7.29$, $p < .0001$. 청자와 자극그림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2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양육자의 경우 아동 청자를 대상으로 설명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설명할 때보다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동보다는 성인이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0.79 vs. 2.70). 이는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아동어의 특징이라기보다 아동지향어의 특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의 경우에 오히려 청자가 성인일 때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약간 많았으나 청자가 인형일 때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적어도 만 4세 이하의 어린 아동은 의성의태어 사용 시 청자에 따른 조절을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도 동작 그림의 설명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자의 발화에서도 아동의 발화에서도 나타났으며, 청자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것은 의성의태어의 음성 상징적 특징이 동사의 습득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3. 한국어 모어 가정과 비모어 가정 양육자-아동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교

한국의 어머니들은 성인에게 말할 때보다 아동에게 말할 때 의성의태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2의 결과는 의성의태어 사용이 아동지향어의 한 특징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이중 언어자 즉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도 아동지향어로서 의성의태어를 자신의 자녀에게 충분히 사용할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이중 언어자의 의성의태어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들 자녀들의 의성의태어 사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연구 3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양육자와 성인이 된 후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양육자(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대화를 수집하여 의성의태어 사용정도를 조사하였다. 그와 함께 아동들의 자발발화에 나타난 의성의태어 사용 정도를 비교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반가정 아동-양육자 30쌍과 한국어 비모어 가정(베트남과 중국 국적의 양육자)의 아동-양육자 28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2의 결과와 비교를 위해 동일한 연령인 만 2-3세(30개월에서 48개월)로 연령을 통제하였으며, 성별은 남아 50%, 여아 50%로 하였다.

절차

자발발화 자료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실험자는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양육자에게는 가능한 한 평소에 자녀와 놀던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놀이 장면을 비디오캡코더로 녹화하였다. 녹화시간은 평균 15분씩이었으며, 녹화된 자료는 실험자가 1-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는 CLAN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체 발화 어휘 중 의성의태어 출현비율을 계산하였다.

표 4.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양육자의 놀이상황에서 의성의태어의 사용 비율 (%)

양육자 모어	아동		양육자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i>n</i> =30)	4.78	3.22	5.14	2.22	4.96	2.75
비한국어(<i>n</i> =28)	0.81	1.47	1.24	1.26	1.03	1.37
전체	2.86	3.21	3.26	2.67	3.06	2.95

결 과

표 4에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양육자의 놀이상황에서 의성의태어의 출현 비율(%)을 제시하였다. 각 조건별 전체 발화 어휘 수는 일반 가정 양육자 830개, 아동 131개였고, 다문화가정 양육자 431, 아동 130이었다. 일반가정의 양육자가 다문화가정의 양육자에 비해 15분 동안 자발발화 한 발화수가 훨씬 더 많았으나, 아동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의성의태어 사용에 있으므로 전체 발화 수에서 의성의태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양육자 모어 (한국어, 비한국어)를 피험자 간 변인으로, 발화자 (양육자, 아동)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는 2원 혼합설계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양육자와 아동을 하나의 쌍으로 하고, 이 쌍을 무선 변인으로 하는 반복 설계였다.

양육자의 모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56) = 62.54$, $MSE=7.17$, $p < .0001$. 아동의 경우 한국어가 모국어인 어머니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의성의태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4.78 vs. 0.81).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 양육자들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율이 비모어 화자 양육자들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5.14 vs. 1.24).

모어가정과 비모어 가정 모두에서 양육자가 아

동에 비해 의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양육자와 아동의 의성의태어 사용 비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연구 1의 CHILDES의 결과와 유사하고 연구 2와는 다르다. 따라서 자연스런 대화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양육자와 아동 간에 차이가 없으나,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에서는 양육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자에서는 양육자인 성인들이 좀 더 길고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양육자들은 아동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의도적으로 의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사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동-양육자 대화의 상황에서 아동은 양육자의 발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것이 대화 상황과 실험 상황에서 나타난 의성의태어 사용의 차이의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CHILDES의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자연적 및 실험적 상황에서 나타난 아동과 성인의 의성어, 의태어 사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CHILDES를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언어 간 비교가 가능한데, 연구 1은 일본이나 미국의 유아에 비

해서 한국어 유아의 발화에서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인 성인의 의성의태어 발화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한국 유아의 의성의태어의 발화빈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성인들이 유아에게 의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어 성인의 유아에 대한 발화에는 2.24%가 의성의태어였다. 이는 영어(0.32%) 또는 일본어(1.01%)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율이다.

연구 2는 한국어 성인과 아동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과제를 주고 의성의태어의 사용을 조사하였다. 성인에게서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훨씬 많았다. 이것은 성인의 의성의태어 어휘량이 훨씬 많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아동에게 그림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즉 아동 지향어의 생성을 촉진하는 상황에서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더 많았다. 동일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성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아동지향어의 한 특징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동의 경우에는 청자에 따라서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달라지지 않았다. 청자가 성인이건 아동이건 의성의태어의 사용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의성의태어 사용비율은 성인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 3은 의성의태어의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 모어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양육자를 비교하였다. 연구 2와는 달리 자연적인 대화 상황을 관찰하였으며, 한국어 모어 가정이 다문화 가정에 비해서 의성의태어의 사용이 더 빈번함을 발견하였다. 한국어 모어 가정의 아동과 성인은 모두 의성의태어의 사용에서 다문화 가정을 압도하였다. 특히 이 차이는 양육자의 경우에 두드러졌는데,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양육자의 전체발화수의 차이는 약 2:1인데 비해 의성의태어 사용의 차이는 약

5:1로써 전체발화수를 감안하더라도 다문화가정의 양육자들은 일반가정의 양육자에 비해 의성의태어를 매우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아동지향어에서 의성의태어의 많은 사용은 모어 화자 양육자일 때에 국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 양육자의 어휘에 의성의태어가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의성의태어는 다른 종류의 단어들에 비해서 습득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충분한 수의 의성의태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다문화 가정 양육자의 모어에서 의성의태어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만약에 일본어와 같이 양육자의 모어에 의성의태어가 발달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국어의 의성의태어의 학습과 사용이 용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3의 양육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이들의 언어에서 의성의태어의 비율은 한국어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 양육자가 의성의태어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며 그것은 연구 3에서 본 연구자들이 얻은 결과와 부합된다. 현재로서는 다문화 가정 양육자의 아동지향어에서 의성의태어가 부족한 이유가 한국어 의성의태어의 낮은 습득량 때문인지 의성의태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덜 발달한 모어의 영향 때문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성의태어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이른 연령의 유아들이 의성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의성의태어가 습득 시기가 매우 빠른 어휘 층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언어에서 습득시기가 매우 빠른 기본 층위의 어휘들은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의성의태어를 배우

는 것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어 화자들에게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쉬운 의성의태어가 비모어 화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단어들을 학습하는 것에 비해서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연구 3에서 다문화가정의 양육자들의 의성의태어 사용 패턴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비모어 화자들의 전반적인 한국어 수행능력이 모어 화자에 비해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화수가 아닌 전체 발화량에 대비한 의성의태어 사용비율에 있어서도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성의태어 사용이 모국어 사용화자의 고유한 능력임을 시사한다.

의성의태어 사용을 한국어 아동지향어의 한 특징이라고 보았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아동지향어로서 의성의태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문화 가정 아동은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적절한 아동지향어가 결여되었을 때 아동이 겪게 되는 다양한 불이익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Kemler-Nelson, Hirsh-Pasek, Jusczyk, & Cassidy, 1989; Werker, J. F., & McLeod, 1989; Werker, Pons, Dietrich, Kajikawa, Fais, & Amano, 2007). 실제로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상당히 늦음이 보고되고 있다(박미단, 2009; 박은정, 2010; 이정민, 박혜원, 2011). 외국인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이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돋는 교육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의성의태어의 발달과 언어 능력의 발달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상황 및 인위적인 상황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1과 3은 자연적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2는 인위적 상황에서의 관찰이었다. 연구 2에서는 아동과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량에서 큰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연구 1과 3에서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인위적인 상황에서의 관찰 결과가 자연적인 상황에서의 결과와 다름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2의 결과는 자발적 발화 상황에서의 아동의 의성의태어 사용이 양육자와의 대화 상황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화 상황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육자와 아동이 직접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에서 아동은 양육자의 언어를 반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은 관찰 대상으로 특정 연령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 지향어에 나타나는 의성의태어의 비율과 사용방법이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양육자와 관련하여서는 다문화 양육자의 모어의 아동지향어 및 의성의태어와 관련한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지향어가 발달한 언어도 있는 반면, 아동지향어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파푸아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멕시코 마야족)도 보고되어 있다. 전자에서는 아동지향어를 통하여 언어발달이 촉진될 수 있지만, 후자처럼 아동지향어가 없는 경우에도 언어발달은 지연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의성의태어가 발달한 모어를 사용하는 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양육자에서 한국어 의성의태어의 습득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다문화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습득 및 사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실

용적인 의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현

- 김민정(2009). 한국어 아동 지향어에 나타난 폐쇄 음의 음향 음성학적 특성. *말소리와 음성과학*, 1(3), 117-122.
-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2004). 그림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박미단(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비교. 나사렛 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언어치료학 석사학위 논문.
- 박은정(2010). 어머니 언어입력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발달 과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복, 장유경(1999). 어휘 획득 과정에서의 언어적 입력과 인지적 제약.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49-65.
- 이정민, 박혜원(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언어 능력, 자발발화특성과 자녀의 자발발화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 2011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포스터발표*. 전북대학교.
- 이혜련, 이귀옥(2005).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 간의 관계: 동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6), 205-216.
- 연변언어연구소(1982). 우리말 의성의태어 분류 사전. 延邊: 연변인민출판사.
- 장유경, 임현정, 곽금주(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어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05-120.
- 채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Daniel S., Aslin, R. N. (2000). Spoken word recognition and lexical representation in very young children. *Cognition*, 76, 147 - 166.
- Barker, B. A., Newman, R. S., (2004). Listen to your mother! The role of talker familiarity in infant streaming. *Cognition*, 94, B45 - B53.
- Cattell, R., (2000). *Children's Language: Consensus and Controversy*. London/New York: Continuum.
- Cooper, R. B., & Aslin, R. N. (1990). Preference for infant-directed speech in the first month after birth. *Child Development*, 61, 584 - 595.
- Daniel S., Aslin, R. N. (2000). Spoken word recognition and lexical representation in very young children. *Cognition*, 76, 147 - 166.
- Downey, G.,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 - 76.
- Fernald, A. (1992). Human maternal vocalisations to infants as biologically relevant signal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J. H. Barkow, L. Cosmides, & J. Tooby (Eds.),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rnald, A., & Mazzie, G. (1991). Prosody and focus in speech to infants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221.
- Fernald, A., & Morikawa, H. (1993). Common themes and cultural variations in Japanese

- and American mothers' speech to infants. *Child Development*, 64, 637-65.
- Fernald, A., Taeschner, T., Hirsh-Pasek, K., Jusczyk, P. W., (1989) A crosslanguage study of prosodic modifications in mothers' and fathers' speech to preverbal infants. *Journal of Child Language*, 16(3), 477 - 501.
- Fischer, J. L. (1970). Linguistic socializat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R. Hill & R. Konig (Eds.), *Families in East and West: Socialization process and kinship ties*. The Hague: Mouton.
- Fisher, C. L., & Tokura, H. (1996). Acoustic cues to grammatical structure in infant-directed speech: crosslinguistic evidence. *Child Development*, 67, 3192 - 218.
- Grieser, D.L., Kuhl, P.K.(1988). Maternal speech to infants in a tonal language: support for universal prosodic features in motherese.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4 - 20.
- Jusczyk, P. W., Hirsh-Pasek, K., Kemler-Nelson, D. G., Kennedy, L., Woodward, A., & Piwoz, J. (1992). Perception of acoustic correlates of major phrasal units by young infants. *Cognitive Psychology*, 24, 252 - 293.
- Kemler-Nelson, D. G., Hirsh-Pasek, K., Jusezyk, P. W., & Cassidy, K. (1989). How the prosodic cues in motherese might assist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Child Language*, 16, 53 - 58.
- Lederer, A., & Kelly, M. H. (1991). Prosodic correlates to the adjunct/complement distinction in motherese. *Papers and Reports on Child Language Development*, 30, 55 - 58.
- MacWhinney, B. (2000). *The CHILDES Project: Tools for Analyzing Talk*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zuka, R., Kondo, T., & Hayashi, A., (2008). Japanese mothers' use of specialized vocabulary in infant-directed speech: infant-directed vocabulary in Japanese. In: Masataka, N. (Ed.), *The Origins of Language*. (pp. 39 - 58). Tokyo: Springer-Verlag.
- Morgan, J. L. (1986). *From simple input to complex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Morgan, J. L., Meier, R. P., & Newport, E. L. (1987). Structural packaging in the input to language learning: Contributions of prosodic and morphological marking of phrases to the acquisition of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19, 498 - 500.
- Morikawa, H., Shandf, N., & Kosawa, Y. (1988). Maternal speech to prelingual infan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s among functions, forms and referents. *Journal of Child Language*, 15, 237-256.
- Nagumo, M., Imai, M., Kita, S., Haryu, E., & Kajikawa, S. (2006). Sound iconicity bootstraps verb meaning acquisi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fant Studies, 15, Kyoto, Japan.
- Ogino, M. (1981). Analysis of maternal speech to prelinguistic infants. In M. Hori (Ed.), *Aspects of language acquisition*. Hiroshima: Bunka Hyoron.
- Osaka, N. (1999). Kansei no kotoba wo kenkyu

- suru: Giongo, gitago ni yomu kokoro no arika. Tokyo: ShinyoshaSnedeker & Gleitman (2004). [芋阪直行 (編著) (1999). 感性のことばを研究する: 擬音語・擬態語に読む心のありか. 東京: 新曜社].
- Papousek H, & Papousek M.(1987). Intuitive parenting: A dialectic counterpart to the infant's integrative competence. In J. Osofsky J.(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2nd ed. (pp. 669-720). New York: Wiley.
- Taumoepeau, M., Ruffman, T. (2008). Stepping stones to others'minds: Maternal talk relates to child mental state language and emotion understanding at 15, 24, and 33 months. *Child Development*, 79, 284 - 302.
- Toda, S., Fogel, A., & Kawai, M. (1990). Maternal speech to three-month-old infant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hild Language*, 17, 279-294.
- Thiessen, E. D., Hill, E.A., Saffran, J. R.(2005). Infant-directed speech facilitates word segmentation. *Infancy*, 7, 53 - 71.
- Venditti, J. J., Jun, S. A., & Beckman, M. E. (1996). Prosodic cues to syntactic and other linguistic structures in Japanese, Korean, and English. In J. L. Morgan & K. Demuth (Eds.), *Signal to syntax: Bootstrapping from speech to grammar in early acquisition* (pp. 331 - 4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erker, J. F., & McLeod, P. J. (1989). Infant preference for both male and female infant directed talk: A developmental study of attentional and affective responsivenes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43, 230-246.
- Werker, J. F., Pons, F., Dietrich, C., Kajikawa, S., Fais, L., & Amano, S. (2007). Infant-directed speech supports phonetic category learning in English and Japanese. *Cognition*, 103, 147 - 162

1차 원고 접수: 2012. 1.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2. 11.

최종 게재 결정: 2012. 2. 12.

The Use of Onomatopoeic Language in Korean Children-Caregiver Interactions

Sung-Bong Bae

Dept. of Psychology

Yeungnam University

Hye-Won Park Choi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use of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nd its functions in Korean children. In Study 1, conversations between a Korean child and her care-givers in CHILDES were analyz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were found in their utterances than other languages such as English or Chines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ppear to belong to the basic layer of Korean motherese. In Study 2, an experimental situation was set in which children were asked to explain pictures depicting an object or motion for a puppet and a strange adult.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mothers us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to their children than to the adult. Both mothers and children us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when the pictures depicted a motion rather than an object. Study 3 showed that immigrant mothers used less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than Korean mothers which in turn resulted in lower use of them in childr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requent use of onomatopoeic language is a characteristic of Korean native CDS. The role of onomatopoeia in th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language was also discussed.

Keywords: *Onomatopoeia, Mimesis, Child-directed speech(CDS), Adult-directed speech(ADS)*

